[ 1 꽃다발 ]

앞에 있는 재료들을 놓고 고민했지만, 마음에 드는 게 생각나지 않았다.

손으로 만든다고 해도, 결과물이 별로면 선물 같지 않을 것 같고. 파는 걸 선물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꽃다발을 사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졸업식 때도 많이들 고르고, 선물로도 자주 고르잖아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음…. 꽃다발을 선물로 한다고 하면….”

“으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은혜 선배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는.

“꽃다발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지 않을까…?”

꽃다발이 최악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 그렇게 별로예요?”

“별로라는 건 아니고. 꽃다발은 받고 난 뒤가 힘들거든.”

“집에서 식물을 기르는 사람이 아니면 금방 죽어버리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시들고. 버릴 때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상한 의견 내서 죄송합니다.”

“아, 아니야! 꽃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선물인걸! 나쁘지 않은 생각이었어!”

어떻게든 날 북돋아 주려고 하는 은혜 선배의 말이 더 가슴 아프다….

“그러면 꽃다발 말고. 선물로 어떤 게 좋을까요?”

“으음. 보통 선물을 고를 때는, 자기가 받았을 때 기뻐할 만한 걸 고르는 게 좋다던데.”

“후배는 무슨 선물을 받으면 기쁠 것 같아?”

“글쎄요….”

만약에 내가 선물을 받는다면 뭐가 좋으려나.

“…돈?”

“후배. 그건 선물이라고 안 해.”

“상품권?”

“어휴. 그렇게 액수가 적혀있는 선물 말고….”

“어렵네요….”

애초에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상상이 가질 않는다. 나라면 뭘 받아도 기뻐할 것 같은데.

“은혜 선배는 어떤데요?”

“응? 나?”

“네. 선배는 어떤 선물을 받으면 좋아할까 싶어서요.”

“음. 나는….”

은혜 선배는 목도리를 추켜 올리며 대답했다.

“알기 쉬운 선물이려나?”

“어…. 알기 어려운 선물도 있나요?”

“후후. 엄청 많지.”

은혜 선배는 재밌는 일이 생각난 것처럼 웃었다.

“만약에 후배가 같은 반 친구한테 생일선물로 향수를 받으면 어떨 것 같아?”

“향수를 쓰진 않지만…. 받았으니까 뿌리고 다닐 것 같은데요.”

“후후. 그래?”

“근데 만약 선물한 애가 같은 향수를 쓰고 다니면?”

“…어.”

선물 준 애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라고 묻기 전에 은혜 선배가 말을 꺼냈다.

“어떤 의미를 담아 선물한 건지, 아니면 정말 별생각 없이 향이 좋아서 선물해준 건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으니까, 그런 선물은 싫더라.”

“그래서 난 알기 쉬운 게 좋아.”

알기 쉬운 선물이 좋다.

은혜 선배의 대답을 듣고 나니 선생님에게 줄 선물을 정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은혜 선배. 선생님 선물은 꽃다발 드리는 걸로 해요.”

“괜히 더 고민했다가 애매한 걸 드리는 것보단 낫잖아요.”

“어, 그러게? 듣고 보니까 후배 말이 맞는 것 같아. 후배 말대로 꽃다발로 하자.”

“꽃을 카네이션으로 하면 의미도 확실하고요.”

“응, 그렇네! 카네이션 꽃다발. 좋을 것 같아!”

“근데 후배는 이런 일 처음일 텐데, 되게 잘한다! 재능 있는 것 같은데 학생회장 나가볼래?”

“아, 아뇨. 제가 무슨 학생회장이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입꼬리가 실실 올라간다.

“후후.”

은혜 선배는 그런 나를 보면서 입을 가린 채로 웃었다.

“왜, 왜 웃어요?”

“응? 아, 그냥….”

“역시 알기 쉬운 게 좋다고 생각해서.”